2026.04.20

[국내주식 마감 시황]

이재원 Market Analyst | jaewon2.lee@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 sebin2.kim@yuantakorea.com

호르무즈 해협 개방! 후 재봉쇄에도 상승

KOSPI 6,220pt(+0.4%), KOSDAQ 1,174pt(+0.4%)

해외 시황 —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니다라고 할 뻔

- 미국 주식시장 상승. 이란 외무장관의 호르무즈 해협 상업용 선박 대상 전면 개방 발표에 따름. 국제유가 급락. 장 마감 이후 주말에 상황 반전. 미국 강경책 유지. 해협은 열되 이란 항구 대상 해상 봉쇄는 최종 합의 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 고수. 이란 즉각 반발, 혁명수비대 전면 개발 발표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현재 양측 갈등(드론 공격, 선박 나포) 현재진행 중이나 미국 특사단, 협상 위해 파키스탄 이동 중. 이란은 2차 협상 불참 시사했으나 타결보다는 협상 우위 점하기 위한 신경전으로 판단

수급 — 외국인 개인 동반 순매도 했으나 외국인 대형주, 특히 SK하이닉스 순매수

- KRX KOSPI 현물 기준 기관 단독 순매수. 외국인, 개인 동반 순매도 했으나 순매도액은 크지 않음. 외국인은 기계장비, 전기전자 업종 등 호실적 기대 대형주 순매수. 특히 SK하이닉스 금주 실적 발표 앞둔 가운데 2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며 신고가 경신, 지수 하방 지지요인

시황 —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변동성, 시장은 적응 완료

- 금일 KOSPI, KOSDAQ 각각 0.4% 상승. 냉정하게,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 상승 야기했던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과 이후 재차 폐쇄된 현재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님. 다만 시장은 변동성에 익숙해지는 과정 진행 중. 트럼프와 이란 모두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양국의 대치를 일련의 협상 과정이라 판단. 실제로 유가는 금일 5.3% 반등했음에도 불구, 일주일 전 대비 11.7% 하락. 반등 폭이 낙폭의 절반 수준에 불과. 시장의 관심사는 실적에 집중. 금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KOSPI 12개월 선행 EPS는 추가 상향될 전망(현재 2~4분기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안됨). 전거래일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EPS는 724Pt, PER 7.5배. 8천피도 과거 20년 평균 PER 10배에 못미치는 상황.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 반도체, 방산, 2차전지 등 대형주로 수급 유입 중. 이는 EPS가 한국과 유사하게 IT 중심으로 상향 조정 중인 아시아 주식시장(NIKKEI225 +0.6%, 대만 가권 +0.4%)이 금일 동반 상승한 이유

특징업종 — AI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와 실적 모멘텀

- 주가 강보합이나 하락 업종 다수 **1) 보안:** 앤트로픽 신형 AI 미토스발 사이버 위협 현실화. 정부 및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 기대감(파인텍 상한가, 케이씨에스 +23.5%, 드림시큐리티 +16.9%) **2)조선기자재:**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지지부진. 1분기 호수출도 지속. 미국 MRO 모멘텀도 여전(오리엔탈정공 +10.8%, 에스엔시스 +5.8%)

이벤트 — 미국-이란 대면 협상 기대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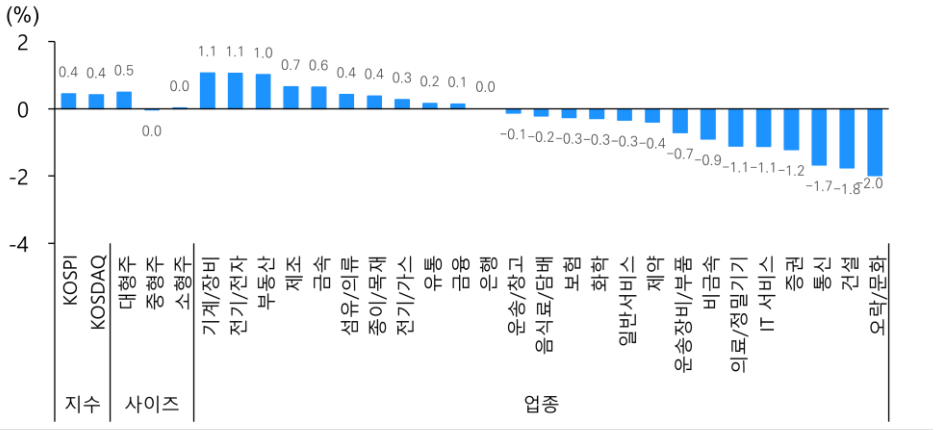
-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이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면 협상 가질 예정. 협상 진행 과정 살펴볼 필요. 한국시간 22일 오전 9시까지 공격 유예일이기에 상황 지켜볼 필요. 1) LSELECTRIC 실적 발표(21일) 2)3M, 유나이티드헬스 실적 발표(21일 저녁)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1,815	-1,652
외국인	-1,598	222
개인	-2,774	1,623
거래대금	222,845	143,874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